

韓 “비방으로 내부총질” vs 元 “팀워크 못하면 대표자격 없어”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

윤상현 ‘기득권 혁파’ 키워드
한동훈 “보수정권 재창출할 것”
나경원 “尹 정권 성공, 李 퇴출”
원희룡 ‘尹 팀워크’ 장점 꼽아



한동훈(왼쪽부터),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제주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무대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첫 합동 연설회가 8일 열린 가운데, 4인의 당 대표 후보들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혁신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각자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제주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에 당 대표 후보들이 제각각 서로를 비방하면서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하는 가운데 열리는 첫 합동연설회로서 기대를 모았다.

윤상현 후보는 ‘기득권 혁파’를 키워드로 잡았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당 중앙을 폭파시킬 심정으로 창조적 파괴, 전면 대혁신에 나서달라. 저 윤상현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그러

면서 “윤심이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 당심이고 그게 윤심인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는 최근 당 대표 선거전에 나타나는 분열 양상을 직격했다. 한 후보는 “여러분, 혹시 우리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나”라며 “축제의 장이여야 할 전당대회가 인신공격과 비방으로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 서 이기면 뭐가 남나”라며 “저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여러분과 함께 만든 우리 윤석열 정부를 제가 끝까지 성공시키겠다”라며 “국민의힘의 열망인 보수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했다.

그는 “여러분이 ‘너를 이렇게 쓰고 버리기에 100일이 짧았다’, ‘너라면 폭주한 이재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잘 보셨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도 호소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와 원희룡 후

보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며 “맨날 사사건건 충돌하는 당 대표, 눈치보는 당 대표로는 안 된다. 집안꼴이 되겠다”라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이 잘하는 거 팍팍 밀어 드리고 대통령이 민심과 멀어지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다 파괴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파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몽땅 붕괴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이재명을 퇴출시키겠다. 저 나경원이 끌어내리기 전문인 것 아니시지 않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끌어내듯이 이재명을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원 후보는 대통령과의 ‘팀워크’를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우리 당과 대통령 모두 위기다. 대통령 지지율 26%, 국민의힘 지지율 33%. 이대로는 희망이 없다”며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정말 이리다가 다 죽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바꾸고 당도 바뀌어야 한다”며 “화정동 아이파크처럼 전면 재시공에 대비화가 필요하다. 최고의 팀워크로 당정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아서 국정 지지율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원 후보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며 “아직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 못하는 사람에게 당 대표를 맡겨서 실험하기엔 매우 위험하다”며 한 후보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野,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지적... 최상목 “절대 그렇지 않아”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법인세·기업이윤 등 급감 원인 올해도 세수 사정 그렇게 좋지 않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1~2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일회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자감세로 세수결손 사태가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시장과 해야 할 역할 중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초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를 대비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자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구 의원은 “기재부 자료를 보면 세수 부족분이 세목 중에 법인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부족해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작년 반도체와 제

조업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글로벌 불안정 여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때문 아닌가. 세수 결손이라는 주장은 억측이고 비약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느 국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분야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며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예산불용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감액 추경을 실시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불용액 처리와 세수 결손을 나누고, 감액 추경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사권과 예산결정권 위

배 사안”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가 경제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부족분이 커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추경해서 그것을 감액 경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국가 채무가 늘기 때문에,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체에 여유 재원을 갖고 대응해 실제 불용규모는 10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이 “정부가 세수 추계 및 불용 예산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1.4% 경제 저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세수 펀크 핵심이 법인세와 양도세 2년간 감면액이 144조6000억원이다. 결론은 대기업과 부자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결손에 기여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태홍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병원 진료비, 10년새 5.5배 폭등

“경미한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치료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된 한방병원 진료비가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새 5.5배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한방진료비는 ▲2024년 2722억원 ▲2015년 3576억원 ▲2016년 4598억원 ▲2017년 4598억원 ▲2018년 7139억원 ▲2019년 9569억원 ▲2020년 1조1238억원 ▲2021년 1조3066억원 ▲2022년 1조4636억원 ▲2023년 1조488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10년 새 증가폭도 컸다.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원으로 무려 10.8배나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으로 7.7배, 침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 늘었다.

한방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

반 병·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만8905명, 일반 병·의원 환자수가 145만265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도와 관계가 깊다.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일반·한방 포함)은 2014년 1만6245개소에서 지난해 2만594개소로 26.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한방병원은 224개소에서 534개소로 무려 138.4%나 폭증했다. /박태홍 기자

與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여야 합의 과정 생략한 위헌투성이”

국민의힘이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순직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한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또 다시 민주당이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으

로 강행 처리할 시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의 특검법안 처리가 정쟁용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만에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한층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특검법안을 접수했고 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박태홍 기자